

다큐멘터리 사진 새 지평 연故 이경모 선생 작품

광양시, 디지털화해 영구 보존

한국 격동기 역사 중요 자료
광주일보 전신 호남신문사 근무
아들 초청 아카이브 위한 간담회
원판 필름 5000여장 제공키로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경모(1926~2001) 선생의 작품이 디지털화돼 영구 보존된다.

광양시는 한국의 격동기를 사진으로 담은 이경모 선생의 사진 작품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최근 이 선생의 아들인 이승준 씨를 초청해 '고(故) 이경모 선생 사진 아카이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정재봉과 친구들, 문학의 뿔' 사업으로 이경모 선생의 유작으로 남아있는 작품들을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소실되지 않도록 디지털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해방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변천사와 각종 굵직한 사건 등을 담은 사진과 지금은 없어지거나 변화된 광양의 옛 모습들이 담긴 사진을 확인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준 씨는 광양시가 아버님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5000여 장의 사진 원판필름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와 이경모 선생의 아들 이승준 씨가 이경모 선생의 사진 작품 디지털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시는 선생의 가족으로부터 5000여 장의 사진과 필름을 받아 디지털화한다.

1926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서 태어난 이 선생은 우리나라의 격동기 역사를 사진으로 남긴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대한민국 사진계의 거장으로 알려졌다.

이 선생은 20세의 나이에 노산 이은상(李琿相) 선생의 도움으로 광주일보의 전신인 호남신문사 사진부장으로 사진 기자로 길에 들어섰다.

8·15해방과 여순사건, 6·25 한국전쟁 등을 취재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사진작가단 결성을 주도했으며 한국 사진협회 이사와 한국 사진대전 심사위원장을 지냈고 1992년 화관문화훈장과 1997년 금호예술상을 받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한국 사진역사의 발자취와 역사적인 사진, 광양의 옛 모습 등을 담은 기록물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선생의 작품을 선보일 전시공간 구성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무안황토갯벌랜드 체험 프로그램 확 늘었네

황토물총놀이·풍선아트 등
특별한 추억 만들기 다양

무안군이 오는 16일 무안황토갯벌랜드를 방문하는 가족단위 관광객과 숙박객 등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낙지광장에서 황토물총놀이와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타코야끼, 팥빙수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무안생태갯벌과학관에서는 핀버튼 만들기 등 상설프로그램 7개와 단오부채 및 티셔츠 만들기 등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무안황토갯벌랜드는 국내 최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탐사르습지 및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2013년부터 해제면 유월리에 199억원을 투자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조성해 2018년 1월 개장했다.

무안생태갯벌과학관과 분재테마전시

관 등 전시시설과 황토이글루와 캐러밴, 오토캠핑장 등 숙박시설 식당과 매점, 다목적운동장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안황토갯벌랜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황토물총놀이 등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집에 있는 비누와 물총을 갖고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http://getbol.mua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함평군보건소 짐볼 댄스교실 19일부터 10월까지 운영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가 오는 19일부터 10월까지 총 17주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짐볼(Gym ball) 댄스교실을 운영한다.

짐볼 댄스교실은 에어로빅에 짐볼과 스

텟박스, 음악을 접목한 것으로, 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신체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주민들의 체중감량과 체력증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전·

후 복부둘레와 체성분 분석 검사 등을 측정하고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댄스교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30분~5시30분이며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신안 섬 여행 스마트하게 즐긴다

군, 앱 개발...여행정보 이외 다양한 이벤트 마련

신안군이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신안 흑산 영산도 전경. <신안군 제공>

"신안 섬 여행 이젠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신안군이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스마트한 관광을 위한 '신안 스마트투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섬 여행 정보 제공과 함께 여행 후기 쓰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15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행안부 선정 '2018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신안군 입자도와 병풍도, 반월·

박지도, 영산도를 방문하고 '신안 스마트투어' 어플에 여행후기를 남기면 된다.

군은 세일요트와 리조트 숙박권, 지역 특산물인 해풍 건정과 천일염 등 매월 초 추첨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선물을 준다.

스마트투어는 복잡한 여객선 정보를 정리한 '배편 찾기 기능'과 관광명소·숙박·맛집·특산물 등 섬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있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도 유용하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신안 스마트투어' 이벤트도 성황을 이뤘다.

신안 증도를 여행하고 후기를 남기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서는 80여 명 중 추첨을 통해 32명이 당첨됐다. 당첨자에게는 세일요트와 리조트 숙박권 등 다양한 상품을 지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어플을 개발해 현재까지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주요 관광지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스마트 관광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스마트투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신안 스마트투어'로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광군 '친환경 별채' 자연 훼손 줄이기 눈길

영광군은 최근 조립사업에 수반되는 별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별채'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그동안 조립대상지 별채 방법은 대면적 입목 별채로 산림훼손과 산사태 우려, 야생동물 서식처 훼손, 경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림생태계 보전과 경관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입목별채의 문제점을 보완한 친환경 방식을 도입했다.

군은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산 78번지 7ha의 면적에 친환경 별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목재 생산량 조성을 위해 편백 2만여본을 심었다.

친환경 별채 방식은 5ha 이상 대면적 별채 대상지에 별채면적의 10% 이상을

영광읍 단주리 스포티움 앞 무신호 회전교차로 설치



영광군은 영광읍 단주리 스포티움 앞 신호체계 교차로에 대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최근 무신호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

스포츠움 교차로는 영광-대산간 국도 23호선 4차선 개통으로 군도24호선과 연결됨으로써 교통량 증가가 예상됐음에도 신호등 체계가 유지됨으로써 신호대기에 따른 주민불편이 제기됐다.

스포츠움 회전교차로는 하부 국도와 상부 군도가 교차하는 6개 교차로상에 설치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과 스포티움 방향의 차량 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